

## 인협, 2014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가

# 총 220건 480만 유로 수출상담 실적 기록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조정석)는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개최된 2014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 한국 인쇄문화관을 조성해 참가했다. 100여개국 7100여개사가 참가하고, 약 27만여 명이 방문한 이번 도서전에서 인협은 우리나라 인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직접참가 업체 및 위탁전시 업체들의 수출상담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총 220건 480만 유로에 달하는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 인쇄문화 우수성 홍보 수출상담 지원

세계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세계 각국의 도서가 전시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예술문화 공연, 작가와의 대화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열림으로써 출판 분야 최대 국제교류의 장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인협은 해외 출판인쇄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출판계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한국관을 조성해 참가했다. 이로써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역사성과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으며, 각국 관련 협회와의 교류를 통한 정보 교류, 인쇄물 수출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 홀4.0에 조성해 순도 높은 바이어 방문

지난해부터 출판존인 홀4.0에 조성된 한국관에는 청아문화

사, 아시아코리아프린팅, (주)아시아프린팅, 팩컴코리아(주) 등의 직접 참가업체와 드림인쇄(주)를 비롯한 15개의 위탁전시 업체가 참여했다.

34㎡ 규모로 조성된 한국관은 Printing Korea의 타이틀로 통일성을 이루고, 각 참가사마다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해 자유롭게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관에서는 전시회 내내 패널을 활용한 우리나라 인쇄문화 홍보, 영문 홍보물 배포, 직접참가 업체의 수출 상담, 위탁 전시업체의 홍보물 전시 및 수출 상담 대행 활동 등이 활발히 전개됐다.

특히 지지 체험과 고인쇄 시연행사 등에 대한 방문객을 관심이 높았으며,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역사와 현황, 주요 수출업체의 명단이 포함된 영문 홍보물의 요소요소 배치 및 배포를 통해 우리나라 우수 인쇄문화의 홍보 및 인쇄 수출 증진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 참가업체

### 청아문화사



청아문화사는 고급 컬러인쇄를 비롯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전, 성경, 의학사전 등의 박엽지 인쇄기술을 주도하

는 30년 노하우의 중견 인쇄사다. 전시회 기간 동안 약 40개 업체와 약 80만 유로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 남미와 같은 다양한 지역의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특히 박엽지 인쇄에 대한 문의가 많아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 아시아코리아프린팅



아시아코리아프린팅은 아동서적, 캘린더, 패키지 등의 인쇄물을 일본,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수출하는

전문기업이다. 전시회 기간 동안 약 30업체 약 50만 유로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인터넷 연결이 좀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이번이 첫 참가였는데, 다음 번 기회에는 좀 더 많은 성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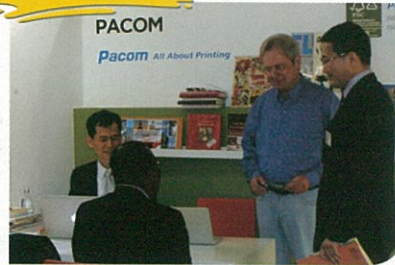
### (주)아시아프린팅



(주)아시아프린팅은 성경, 아트북 및 양장서적 등을 해외에 꾸준히 수출하고 있는 중견 인쇄사다.

2012년부터 일본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에도 100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약 50개 업체 약 100만 유로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홀 4.0이 출판 솔루션 위주로 만든 공간이라 관람객이 적은 편이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순도 높은 바이어가 많아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팩컴코리아(주)



팩컴코리아(주)는 아동용 책자, 캘린더 및 양장서적 등을 해외에 꾸준히 수출하고 있는 전문 업체다. 매년 20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등지의 캘린더 수출 비중이 크다. 전시회 기간 동안 약 60개 업체, 약 200만 유로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여러 업체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꾸준히 참가해 유럽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남미 바이어 '가격' · 유럽 바이어 '납기'

직접 참가업체 이외의 드림인쇄(주)를 비롯한 15개 업체도 위탁 전시를 통해 40여건 50만 유로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대체로 남미 출신의 바이어는 가격에, 유럽 출신의 바이어들은 가격보다 납기에 민감했다.

한국관에는 1일 평균 300명, 총 15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수출상담 실적은 위탁참가 업체를 포함해 총 220건 480만 유로 규모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참가사, 전시장, 방문객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내년에는 전시회 규모가 더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변화하는 인쇄출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1. 2014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주)청아문화사, 아시아코리아프린팅, (주)아시아프린팅, 팩컴코리아(주)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2.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옛 인쇄방식에 따라 직접 시연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